"내신 안좋은 중상위권 하향 지원 동점자 처리 규정 꼼꼼히 살펴야"

광주일보·광주 대성학원 주최 '대입 설명회' 성료

광주일보와 광주 대성학원이 공동 주최한 '2008 대입 논술 무료 설명회'가 20일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600여 명이 강당을 가득 채워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등급제와 대학별로 치러질 논술·면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강사로 나선 서울 초암논술아카데미 조성식 입시전략팀장은 "수능에서 실망스런 점수가 나왔다고 일찌감치 재수를 결정하거나 포기해선 안된다"며 "대학별로 다양한 방식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전략만 잘 짠다면 낮은 수능 점수로도 대학에 진학하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대학마다 다른 수능 등급 점수 기준에 대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별·학과별로 반영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을 제시하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우선선발 전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논술에 자신이 없는 최상위권이나 내신에 자신이 없는 중상위권의 경우 하향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통합교과형으로 실시되는 논술에서는 도표나 그래프 해석 능력을 사회과학적 능력의 심화 또는 경제 영역과 연계해 평가하는 대학이 늘었으며, 시나 소설 등 문학 제시문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인문계열은 수리 영역의 기본적 능력을, 자연계열은 언어논술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느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고3 학생을 둔 주부 정연숙(46·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등급제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자세한 설명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경국(18·금호고 3년)군은 "내신이 낮아서 수능의 비중이 높은 곳을 지원해 볼 생각"이라며 "원래 생각했던 곳보다 한두 군데는 더 원서를 넣어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일보는 광주 대성학원과 함께 수능성적 개별 통보(12월12일) 이후인 12월16일 같은 장소에서 '2008 대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일보와 광주 대성학원이 20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08 대입 논술 무료 설명회'.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일 오전 조선대 캠퍼스 투어에 참가한 전남여고 3학년 학생 350여 명이 전자정보공과대학 대강당에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수 신입생 잡아라"

지역대학 춤·음악공연·선물 등 캠퍼스 투어 다채

수능 후 각 대학들이 고3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해 신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는 다음달 3~7일 예비대학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캠퍼스에는 광주·전남지역 37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850명과 교사 369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여수캠퍼스는 11개 고교 2천200여 명이 참석한다.

전남대는 단과대학별 부스 17개를 설치해 학과 소개를 해주고, 21개국 110개 대학에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또 재학생들이 춤·음악공연 등으로 친근함을 유도한다.

내달 6일까지 투어를 진행하는 조선대에는 29개 고교 7천67명이 신청했다. 조선대는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태권 체조' 공연과 '조선대를 소재로 한 코믹영상물' 상영, '부모님·선생님께 문자 보내서 답장 빨리 온 학생에게 선물 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ibhak.chosun.ac.kr)를 가장 많이 찾아온 학생을 뽑아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문화상품권·피자 등의 선물도 준다.

이외 광주대는 3천714명을 대상으로 23일까지, 동신대는 30일까지 8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일일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조선대 입학관리팀 김수현 팀장은 "수능이 끝난 후 각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과거엔 보고만 돌아가는 캠퍼스 투어였지만 이젠 신세대들이 함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쌍방향 행사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검찰, 국정원직원법 위헌제청 신청

서울고검은 20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옛 안기부장)들의 불법감청 지시·묵인 여부를 가리는 '불법감청' 항소심 재판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법정 증언시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문제의 조항은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의 엄수' 조항이다.

검찰은 1심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이 항소심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해 재판이 지연되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전·현직 국정원 직원 32명의 증언을 청취하고 전 국정원장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들은 '증인들이 위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증언을 다시 들어야 하는데 국정원장이 불허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주요 사립대 일부 우수 과목만 내신 반영

"내신 무력화 시도" 지적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일반전형에서 내신 성적 중 일부 우수한 과목만 골라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어 '내신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일 이화여대 정시 일반전형 요강에 따르면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교과영역에서 고교 3년 동안 이수한 모든 과목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45개 단위가 내신으로 반영된다.

통상 인문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외국어 교과영역의 성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국어 교과의 성적이 좋지 않다면 성적이 좋은 사회 교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연세대는 학년·학기·이수 단위의 구분없이 영역별 성적순으로 각각 3과목 이내, 최대 12과목만 반영한다.

한양대도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하고 성균관대도 최상위 석차등급 5과목만 선택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학이 성적이 좋은 일부 과목을 골라 반영하게 되면 정시에서 내신은 사실상 변별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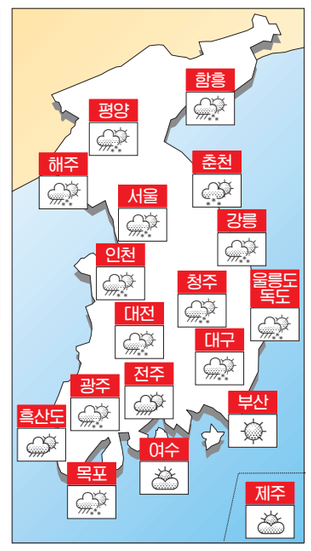
/연합뉴스

찌푸린 하늘

11월 21일 (음 10월 12일) ◇전국날씨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겠다.

광 주	비/눈 후 갬	3~10℃
목 포	비 후 갬	5~10℃
여 수	구름 많음	5~11℃
완 도	구름 많음	5~11℃
구 례	비/눈 후 갬	-1~10℃
해 남	구름 많음	2~11℃
장 흥	구름 많음	1~11℃
고 흥	구름 많음	4~12℃
순 천	눈/비 후 갬	-1~10℃
영 광	비 후 갬	2~11℃
진 도	비 후 갬	6~11℃
전 주	비 후 갬	3~9℃
남 원	눈/비 후 갬	1~9℃
흑산도	비 후 갬	6~9℃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11:08 23:23 썰물 〈 04:12 16:37
여 수 밀물 〈 06:15 18:27 썰물 〈 12:13 --:--

▲해뜸 07:12 ▲해짐 17:24 ▲달뜸 14:49 ▲달짐 02: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 씨						
최저/최고	0/11	3/13	3/15	3/15	5/13	5/11

광주 첫 눈 언제쯤…

열섬현상에 도심 기온 높아 당분간 안내릴 듯

소설(小雪·23일)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 산간 지방에 첫눈이 내렸다.

무등산 입석대·서석대는 기온이 영하 7.8도로 떨어지면서 서리꽃인 '상고대'(樹霜·air hoar)가 만발했지만, 광주 도심엔 밤새 비만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지역의 첫눈 평년값은 11월22일. 가장 빠른 기록은 2002년 11월4일이며, 가장 늦은 때는 2004년 12월24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광주엔 당분간 눈이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 입동(立冬·11월8일) 이후 아침 최저기온이 3도로 내려가고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s)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도심에서 눈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광주의 첫눈은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앞마당에 있는 66㎡(20여평) 크기의 잔디밭이 기준이다. '기상관측노장'(露場)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확인해야 공식 자료로 인정된다. 적설량은 노장에 2분의 1 이상 눈이 쌓여있을 때부터 기록한다.

/김여울기자 wool@

열기구는 위험한 스포츠 보험금 지급 안해도 된다

열기구를 타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정호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8월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했고, A사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기구 탑승에는 스키나 사파리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면책약관이 말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